▌일반논문 ▌『로컬리티 인문학』28, 2022. 10, 85~112쪽 http://dx.doi.org/10.15299/tjl.2022.10.28.85

근대 홍콩을 향한 진암 이병헌의 시선과 공간 인식 고찰

–『중화유기(中華遊記)』를 중심으로

한길로*

| 국문초록 |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현실과 유도의 쇠퇴를 근심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던 진암 이병헌은 직접 해외로 몸을 옮겨 그곳의 실정을 정확히 관찰하고, 또 유교 복원의 방도를 찾아 현실 개선에 일조하고자 했다. 이에 그는 1914년 1월 중국으로 떠나 압록강을 건넜다. 그의 발길은 '안동-봉천-북경-곡부-상해-항주'에 이어 홍콩까지 도달했다. 그곳에 도착한 이병헌은 자신을 포함한 근대기 지식인에게 상당한 지적 자극을 준 강유위(康有爲)를 직접 찾아가 그와의 대면에 성공하였다. 이 기간 총 4차례에 걸쳐 강유위를 만났던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더운 홍콩 이곳저곳을 연신 누비며 그곳의 도시 면모를 세밀하게 관찰했다. 홍콩에 오기 전 그에게 이곳은 '해적들의 늪' 정도로 인지되었다. 하지만 미려한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서구 기술문명과 제도의 실질을 본 그는 서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유연한 태도로 이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 또한 그는 홍콩은 이제 영국인과 중국인만이 살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리하여 홍콩은 이주 한인들의 안정과 정착을 염원하게 만드는 장소로 다가왔다. 요컨대 이병헌에게 홍콩은 자신이 구상하던 개혁 방향의 연장선 위에서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공간적 근거로 인지되었고 또 이주 한인들의 평온한 삶과 공존을 기대하는 새로운 터전으로 각인되었다. 즉,『중화유기』속 홍콩 관련 기록은 근대 홍콩의 풍경을 상세히 담고 있으면서도 통상적인 구지식인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려

* 길림대학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philosmind@jlu.edu.cn)

운 이병헌의 개방・개혁적 면모와 유연한 시각이 선명히 표출되어 있는 유의미한 한문 기행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이병헌, 『중화유기(中華遊記)』, 홍콩(香港), 공교 운동, 강유위

| 차례 |

1. 서문
2. 홍콩 방문의 배경과 도시 관찰의 소회
3. 국제 해항을 홍콩을 향한 시선과 도시 공간 인식
 1) 각성과 개신에 대한 당위를 환기시키는 현장
 2) 안정과 공존을 염원하는 한인들의 새 터전
4. 결론

1. 서문

1842년 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남경조약에 따라 홍콩은 영국에 양도되었고, 이듬해 홍콩총독부가 설립되었다. 이후 이곳은 동아시아와 유럽 문명이 상호 '교차・교섭・혼재・정착'하며 빠르게 변모해갔다.[1] 하지만 당시 청나라에게 이곳은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불평등한 조약으로 인해 부득이 할양된 민족적 수난을 의미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중국 민중에게는 청나라 말기의 혼란을 피해 새로이 정착할 희망의 근대 도시임과 동시에 홍콩 정부의 중국인 차별 정책과 싸워야 했던 투쟁의 현장이었다.[2] 이곳에 관한 조선의 관심 역시 홍콩할양을 기점으로 전개되며 점차 확대되었다.

1) 이송이, 「혼종적 정체성의 해양도시: 식민과 탈식민, 내셔널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사이의 홍콩」, 『해양도시문화교섭학』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1, 166쪽.
2) 임계순, 「國際都市, 香港을 통해 본 中國史」. 『중국사연구』40, 중국사학회, 2006, 352쪽.

당시 조정은 영국의 홍콩할양과 이어진 식민 지배를 중국의 시선에서 살피며 이민족의 동아시아 진출을 경계하고 있었다.[3] 하지만 이런 정서 속에서도 조선과 홍콩 사이의 왕래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다. 특히 1888년 '상해-인천' 정기 항로가 개설되면서 홍콩은 중국 상인(화교)들의 무역 네트워크에 포함되었고 이후 원격지 무역이 가능해지면서 이곳을 왕래하는 조선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게 된다.[4]

한편 근대기 전통지식인의 경우, 홍콩은 여전히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이른바 유림의 관점에서 이곳은 '산해관' 내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홍콩은 전통적인 중화 문명권에서 다소 이탈해 있는 광동의 일개 섬으로 인지되었기에, 이 시기 대다수 유림의 시선은 한인들의 이주가 본격 시작된 서간도나 북만주 일대에 집중되었다. 일제의 침탈과 유도의 쇠퇴라는 전환기에서 한국 유림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다수의 이주민이 정착하고 있던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동하여 조국의 독립과 유도의 회복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10년대 근대 유림의 홍콩행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또 필히 그곳에 가야 할 시급성이 크게 없었기에 관련 기록 역시 많지 않다. 그러하기에 1914년 압록강을 건너 상해를 거쳐 홍콩까지 방문한 함양 출신의 유교개혁가 진암(眞庵) 이병헌(李柄憲, 1870~1940)의 『중화유기(中華遊記)』[5] 속 홍콩 기행문은 대단히 희소한 기록하면서 또한 주목

3) 1858년 표류로 인해 홍콩에 머물다 돌아온 제주인 김성진(金聲振)에 관한 전라우수영의 장계를 통해 당시 조정과 세인의 홍콩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장계에는 김성진의 말을 전하며 "3월 초 5일에 비로소 대청국(大淸國) 광동부(廣東府) 지방 향항도(香港島)에 이르러 배에서 내려 보니, 그 섬의 인물은 청나라 사람과 홍모국(紅毛國) 사람이 뒤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관장(官長)은 역시 홍모국 사람이었고 주관(主管)은 지금 홍모국에게 빼앗겼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전라우수영계록(全羅右水營啓錄)』, "철종 9년 3월 20일 승정원개탁(承政院開坼)", 고전번역원DB (https://db.itkc.or.kr) 참조)

4) 이시키와 료타, 「조선 개항 후 중국인 상인의 무역활동과 네트워크」,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08, 28쪽.

5) 본고의 저본은 김택영이 일했던 중국 남통의 한묵림서국(翰墨林書局)에서 간행된 「中華遊

되는 작품이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본 작품은 1910년대에 중국을 다섯 차례나 오간 그의 현실 인식과 인적교류, 그리고 근대 중국의 당시 실제를 잘 담고 있다. 또한, 압록강에서 지금의 요녕성 및 산동성 그리고 상해와 홍콩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 그의 작품은 본격적인 근대 중국 여행기로서의 위상을 갖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6)

다만 기존 연구는 중국 기행에서 그가 보여준 시대 인식과 사상적인 변화에 집중하면서 도시 '기행' 그 자체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간략히 언급하였다. 또한 강유위와의 만남에 주목하면서 그가 '홍콩'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인지했고 또 그곳을 어떻게 각인하며 무엇을 말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못했다. 다른 도시와 달리 홍콩은 서구 영국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 특수한 공간이었기에 이를 향한 그의 시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영국에 의해 빠르게 변모해가던 동아시아 속 서구 도시 '홍콩'을 향한 그의 기술은, 서구 문명과 제도를 향한 통념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그의 신념과 현실 인식을 파악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즉 그를 통해 서구(화)에 대한 배척이나 편향에서 벗어나 그것을 통해 '일신과 도약'을 도모하고자 했던, 근대 유림의 일면을 확인하려 한다.

記」(2권 1책, 1916)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여행 장소에 따라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권1은 「啓�butts錄」-「遼塞見聞錄」-「駐燕錄」-「聖地追惑錄」 순으로, 권2는 「湖山遊汎錄」, 「中華再遊記」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홍콩 인식을 고찰하고자 남경·상해·항주·홍콩 기행을 담고 있는 「湖山遊汎錄」을 중심으로 서술하려 한다. 기행 전반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하다. (오병한, 「1910년대 「中華遊記」와 李炳憲(1870~1940)의 현실 인식」, 『숭실사학』37, 숭실사학회, 2005, 205-238쪽.)

6) 『중화유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기존 연구에서는 이병헌의 홍콩체험을 예각화 한 연구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노관범, 「1910년대 한국 유교지식인의 중국 인식」, 『민족문화』 40, 2012, 한국고전번역원, 7-39쪽. 오병한, 「1910년대 「中華遊記」와 李炳憲(1870~1940)의 현실 인식」, 『숭실사학』37, 숭실사학회, 2005, 205-238쪽) 참고로 김준(「근대 동아시아 지적 공간으로서의 上海와 동아시아 지식인들」, 『한중인문학회학술대회자료집』, 한중인문학회, 2013)의 논문은 현재 초록만 공개된 상황이다.

2. 홍콩 방문의 배경과 도시 관찰의 소회

이병헌은 강유위를 중심으로 주창된 금문경학(今文經學)과 공교(孔教)운동을 가장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실행에 옮긴 한국 근대 유교개혁론의 대표적인 인물이다.[7] 물론 개혁론의 중심에는 강유위(康有爲)가 있었다. 강유위에 대한 이병헌의 신뢰는 대한제국 시기의 혼란 속에서 양계초의 『무술정변기(戊戌政變記)』를 통한 지적 ‘각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8] 즉 대한제국의 망국이 점차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그는 강유위가 민족 결집과 자강의 방안으로 제시한 공교운동을 적극 수용하며 이를 구국운동의 맥락에서 실천할 것을 구상한 것이다.[9] 결국 강유위라는 존재는 그의 중국행에 매우 중요한 동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병헌은 『중화유기』 권두언(卷頭言)에서 자신이 길을 떠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오호라! 나는 풍파의 백성이노라. 집에 머물며 어찌 마음을 가눌지 시름만 하겠는가? 이에 하루아침에 몸을 일으켜 중국을 유람하고 관찰하였으니 오고 간 여정이 거의 수만 리였다.[10]”라고 밝혔다. 스스로를 “풍파지민(風波之民)”으로 규정한 것처럼 그의 중국행은 내우외환이 겹친 조국의 현실을 어떻게든 해소해보고 대안을 발견해 보려는 의지의 발로였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고심하며 통한의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직접 해외로 건너가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한 ‘실천’이라는 입장이었다.[11]

7) 금장태, 「진암 이병헌의 유교개혁사상」, 『철학과 현실』16, 철학문화연구소, 1993, 182쪽.
8) 1903년 당시 34세였던 이병헌은 ‘강유위가 유자로서 세무(世務)에 달통했으며 유교가 수구배신(守舊排新)을 방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허권수, 「진암 이병헌의 생애와 학문」, 『남명학연구』46, 남명학회, 2015, 10쪽.)
9) 황영례, 「韓溪 李承熙와 海窓 宋基植의 孔教 運動의 相異性」, 『유교사상연구』39, 한국유교학회, 2010, 93쪽.
10) 李炳憲, 『中華遊記』卷1, 翰墨林書局, 1916, 1면, “嗚呼! 僕風波之民也, 居家端憂何以爲心? 一朝起身, 遊觀中國, 往返之程, 殆數萬里.” (이하 출판사 및 발행년 생략)

그럼 이병헌이 강유위가 머무는 홍콩으로 가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보자. 1914년(甲寅) 1월 중국행의 여정에 올라 2월 압록강을 건넌 그는 안동(현 단동)에 머물던 김해 출신의 유림 대눌(大訥) 노상익(盧相益, 1849~1941)과 의령 출신의 수파 안효제(守坡 安孝濟, 1850~1912)를 만나고 2월 25일 북경에 도착한다. 다음날인 26일 그는 곧바로 한계 이승희(韓溪 李承熙, 1847~1916)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가 동삼성한인공교회 지회 승인을 청하는 일로 북경에 머물다 곡부(曲阜)로 향했다는 것이었다.[12] 3월 2일 곡부 방문을 마친 이승희가 돌아오면서 이들은 17년 만에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게 되었고, 이승희를 통해 공교회와 연결된 그는 본격적으로 공교회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13] 하지만 당시 이승희 역시 공교회 회장 강유위를 만나는 것이 평생의 원이지만 그가 홍콩에 있고 또 제반 사정으로 인해 기약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14] 이에 이병헌은 자신이 곡부와 홍콩으로 향하겠다는 의견을 전하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15]

이렇게 북경을 떠난 그는 3월 21일 곡부에 도착하여 이른바 '성적(聖蹟)' 들을 두루 살피는 동시에 곡부 공교회 인사들과 교류했다. 이어 강유위를 만날 뜻을 전한 그는 곡부 공교회 총리 공상림(孔祥霖, 1852~1917)의 소개서를 받아 상해로 떠난다. 상해에 도착한 그는 공교회 잡지사를 방문하여 공상림의 서신을 전하였고 이내 강유위가 머무는 홍콩의 주소를 받아 4월 26일 마침내 홍콩에 도착했다. 그리고 4월 27일 드디어 강유위와 대면하게

11) 즉 권두언을 통해 그는 자신의 기행 목적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국환(國患)을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곳에 갔음을 선명히 드러냈다. 이는 국외로 떠나 국제적인 상황과 실정 등을 직접 살피고 그것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표명이었다.

12) 李炳憲, 『中華遊記』卷1, 「駐燕錄」, 8-9면, "二十六日, 聞剛齊承熙丈, 現方以孔敎支會承認事, 留在城內, 往訪之. …… 惟我人崔君英玖在此, 說剛齋丈, 於數日前, 向山東曲阜去矣."

13) 위와 같음, 10면, "(3월) 二日早朝, 聞剛齊李丈, 自曲早還寓東河沿德華旅館, 往候之敍十七年闊別之意."

14) 李承熙, 『韓溪遺稿』卷6, 「龍積之筆話」, "南海公, 果欲一見, 以遂平生之願, 今不可期也."

15) 李承熙, 『韓溪遺稿』卷1, 「見衛西琴講孔道有感」, "(詩注)李子明來議曲阜香港行."

되는데 이는 유교개혁사상가로서 그의 일생에 매우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16] 당시의 상황을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4월) 27일 아빈율도(亞賓律道)에 있는 강남해[17] 선생을 방문했다. …(중략)… 누대 사면에는 명공(名公)·신사(紳士)·친왕(親王)·패륵(貝勒) 뇌장(誄章) 수십 폭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대개 작년에 모친 노(즉 勞連枝_필자주)태부인의 상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윽고 선생께서 흰 신발에 흰 상복 채로 나오셨으니 행동거지가 응중(凝重)하시고 시첨(視瞻)이 평직(平直)하셨다. 내게 빈석(賓席)에 앉기를 청하시자 '나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라며 사사(謝辭)하며 곧 재배하고 나아가 앉았다. 차를 다 드신 선생께서 "먼 방문을 입게 되었으니 지극히 기쁩니다."라고 하자 내가 "마침내 평생의 원을 얻었사오니 위안이자 행운입니다."라고 했다. 선생께서 "족하의 문학이 심히 뛰어나던데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하셨겠네요."라고 하자 나는 "사환계(仕宦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고는 청심환 열 과(顆)를 올리며 "물품이 비록 지극히 박하오나, 감히 옛사람들의 지현(贄見)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창담(暢談)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시며 잠시 뒤 일 때문에 안쪽으로 드시니 나도 마침내 물러나 객잔(客棧)으로 돌아왔다.[18]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오랜 염원과 같았던 강유위와의 첫 대면에서 이병헌은 매우 '열락(悅樂)'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친상 기간이라 긴 대화

---

16) 오병한, 앞의 논문, 213쪽.
17) 남해(南海)는 그의 고향인 광동성 남해인데 이후 그의 호가 되었다.
18) 李炳憲, 『中華遊記』卷2, 「湖山遊汎錄」, 14-15면, "二十七日, 訪康南海先生于亞賓律道, …(中略)… 樓四面, 擺列名公·紳士·親王·貝勒誄章數十幅, 盖去年遭母勞太夫人喪矣. 已而先生白鞋素稿而出, 擧止凝重, 視瞻平直, 請余坐于賓位, 余謝辭不敢, 因再拜而就坐. 茶罷先生曰: 承遠訪, 至喜, 余曰: 獲遂平生之願, 且慰且幸. 曰: 足下文學甚優, 昔曾科第仕官乎! 曰: 不入仕宦界, 因將清心元十顆裏呈曰: 物雖至薄, 敢表古人贄見之意, 曰: 不敢當暢談, 半晌, 以事入內, 余遂退回棧."

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흡사 마치 제자의 예를 다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평소 강유위를 향한 자신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어진 만남에서 이병헌은 '공교에 대해 확신'[19]에 찬 강유의의 신념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놀란 것은 그의 지적 영역이었다. 이병헌은 자신조차 몰랐던 윤종의(尹宗儀, 1805~1886)의 『벽위신편(闢衛新編)』[20]까지 섭렵하고 있는 강유위를 보며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면서도 광범위한 그의 지적 세계에 탄복할 수밖에 없었다.[21]

물론 이곳에 다다른 이병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공교 운동의 중심에 있던 강유위를 만나 방략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22] 하지만 그에게도 당시 홍콩은 과거 "심상(尋常)한 해적들의 늪"에 불과했던 일개 섬으로 각인되지 않았다.[23] 개혁 성향 유학자의 시선에 포착된 홍콩의 면모는 분명 비범하고 또 낯선 것이었고 유심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지되었다. 그리하려 강유위를 만나면서도 틈틈이 홍콩 이곳저곳을 누비며 직접 홍콩을 체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음력 4월의 무더운 홍콩의 날씨 속에 "땀을 물처럼 뿌리며"[24] 도시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기

19) 李炳憲, 위와 같음, 17면, "(5월 2일)千言萬語, 當以儒我為宗."
20) 윤종의의 본관은 파평, 자는 사연(士淵), 호는 연제(淵齊) · 영산(鈴山)이다. 노론 명문가 출신으로 48세에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다. 1875년 처음으로 중앙 정계로 나아간 뒤 호조참판과 한성부 판윤 등을 거치다 임오군란 당시 춘추대의를 주장하며 이를 공박한 일로 결국 낙향했다. 『벽위신편』은 1848년에 완성한 뒤 1880년까지 증보를 거듭한 저술로 척사론의 관점에서 서양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최보윤, 「『闢衛新編』의 편찬과 尹宗儀의 서양 인식」, 『한국교회사연구』3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05-152쪽)
21) 李炳憲, 『中華遊記』卷2, 「湖山遊汎錄」, 17면, "(5월 2일)又出一部書以示之曰: 君知此著書之人乎? 諦視之, 乃朝鮮尹宗儀士淵所述『闢衛新編』, 編首有康先生所撰序文, 深寓感傷贊歎之意, 而至曰: 高麗已亡, 此書爲無用, 一薛居州, 其如何? 然余未嘗得聞其人, 故以不知對之."
22) 강유위와의 만남에는 백암 박은식이 동행했는데 일행은 이후에도 총 3차례(5월 2일, 5월 3일, 5월 6일) 더 만났다.
23) 李炳憲, 『中華遊記』卷2, 「湖山遊汎錄」, 14면, "(4월 26일)盖此港在前清中葉, 不過為尋常海賊之藪."
24) 위와 같음, 16면, "(4월 30일)汗如潑水, 乃灌足于泉流焉."

록을 남겼다. 1914년 4월 26일부터 다시 상해로 돌아온 5월 7일까지, 약 10일 동안 홍콩을 본격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이병헌은 기본적으로 유교 복원을 궁극적인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아. 애석하구나! 조선이 망하고 중국이 약해진 것은 유교가 잘되지 못한 연고이니"라는 언급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에게 이는 지상의 과제와도 같았다.[25] 이는 물론 그의 한계로 인정되지만, 서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전통지식인이 보여준 '전형'적인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극단적으로 외면하거나 배제하려는 자세 혹은 성급하게 수용하려는 입장도 아니었다. 즉 유교적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과 시무(時務)를 고려하여 필요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단 그것은 제국주의 일본이 아닌 '중국'의 노선을 통해 수용하려고 했다.[26] 그러하기에 그에게 서구 문명의 상징인 대영제국의 지배 속에서 '가장 서구적인 동양'으로 거듭난 홍콩의 면모는 매우 주목할 대상으로 다가왔다. 다음은 홍콩의 외관을 직접 관찰한 그의 소회이다.

> 사방 해면은 범위가 매우 넓었고 이내 정부 · 대학교 · 육군 · 함대가 있어 동방의 소영국(小英國)으로 완연히 성립하였다. 인구는 칠팔십 만인데 수입은 팔백만 원이다. 온갖 법제를 모두 거행하여 완료했고 뭇 화물들이 운집하고 동서 상선들의 왕래가 폭주하였으며 또한 일절의 세금도 없기에 필히 이곳에 정박한다. 물상(物償)의 승귀(勝貴)와 거리의 청초(淸楚)는 마땅히 동아(東亞)의 제일이었다. 저녁으로 향함에, 백암과 함께 객잔으로 돌아와 '외상'[賖數]"[27]호주(壺酒)를 마련하여 장

25) 李炳憲, 『中華遊記』卷2, 「中華再遊記」, 22면, "嗚呼惜哉! 朝鮮之亡, 中國之弱, 以不善儒教之故." 참고로 이 문장은 1916년 기행에서 창작된 것이며, 산동성 곡부에서 작성한 고유문 중 일부이다.

26) 고바야시 히로시, 「이병헌과 근대기 외국과의 만남」. 「종교학연구」8, 서울대종교문제연구소, 1989, 40쪽.

27) 패수(賖數)는 광동어 sia-siàu다. 이는 한자 패장(賖賬)을 의미하는데 통상 외상거래를

기(瘴氣_열대기후에서 오는 풍토병_필자주)를 풀었는데 심한 열기에 비 같은 땀이 극도로 흘러내렸다. 또 누대 아래 돛대에는 등불 빛이 운집하고 어지러이 별들이 펼쳐져 잠들 수 없었다.[28]

위 인용문에는 정부를 포함한 근대식 행정기구와 군대 그리고 대학까지, 각종 설비와 제도를 구비하고 세계의 상선들이 오가는 역동적인 홍콩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29] 변화하면서도 정갈한 도시의 인상을 본 그의 평가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다툴 곳이 없었다. 또 불야성이 된 경제도시 홍콩의 아름다운 야경을 본 그의 마음이 다소 격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안동현(安東縣) 접리수(接梨樹)에 있던 수파 안효제(守坡 安孝濟, 1850~1916)를 만나는 과정에서 살펴본 그곳이 조선보다 궁벽한 실정임을 알고 다소 실망한 그였기에, 홍콩의 도시 면모는 그에게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30] 서구화 된 도시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며 그곳의 면모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병헌은 보다 구체적으로 홍콩을 관찰하기 위해 가장 높은 산으로 향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이목을 끌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서구 기술 하나를 발견한다.

이른다.

28) 李炳憲, 『中華遊記』卷2, 「湖山遊汎錄」, 14면, "(4월 26일)四方海面, 範圍甚大, 乃至有政府焉; 有大學校焉; 有陸軍焉; 有艦隊焉, 宛成小英國於東方. 人口七八十萬, 收入八百萬元, 百度畢擧, 衆貨雲集, 東西商舶, 往來輻奏, 而又一切無稅, 故必於此焉碇泊. 物價之騰貴, 街之清楚, 當為東亞第一也. 向晩同白菴回棧, 賖數壺酒, 以解悶瘴, 甚熱極流汗如雨. 又樓下帆檣, 雲集燈光, 星列擾擾, 不能寢焉."

29) 한편 당시 이병헌이 북경에서 직접 만난 『북경일보』 한인 기자 김자순(金子順)이 월 40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보면 당시 홍콩 시민들의 평균 경제 수준은 비교 불가한 수준이었다고 추측된다. (한길로 · 오경양, 「재중 한인 디아스포라 김자순의 행적과 유교 인식 고찰」, 『국제한인문학연구』29, 국제한인문학회, 2021, 142쪽.)

30) 李炳憲, 『中華遊記』卷1, 「遼塞見聞錄』, 3면, "(2월16일)貧戶四集, 居處之荒陋, 物情之頑, 比內地僻峽, 尤甚."

> (4월) 30일 화원(花園)으로 가서 잠시 쉬었다가 걸어서 남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꼭대기에는 전기를 끌어온 기기창(機器廠)이 있어 전차가 위아래로 재빨리 내달리고 있었다. 숲 사이의 통로[甬道]가 우뚝 곧으면서 경사졌는데, 오는 것은 느리지만 가는 것은 빨랐다. 무성한 그늘과 푸른 나무 사이에 때때로 '굉굉(轟轟)' 소리가 들렸고 산의 동서로 길게 늘어져 남북 양면을 두르고 있었다. 항만 높은 곳에서 타서 비스듬히 북쪽 일대를 굽어보는데 이내 홍콩의 부두 전경이었다. 산 전체에는 층층의 누대와 뛰어난 누각에 별들이 바둑돌처럼 펼쳐져 늘어서 있었으니 바라본 그 경치가 심히 가절(佳絶)이었다.[31]

그가 향한 남산은 현재 태평산(太平山, 영문명 Victoria Peak)으로 추정된다. 홍콩 중 · 서구에 위치하며 남구(南區) 일대에 걸쳐있는 태평산의 최고 높이는 550m로 과거부터 홍콩의 유명한 피서지 가운데 하나였다. 1881년 노면전차(路面電車)인 트램(Tram) 건설에 착수, 1888년에 아시아 최초의 피크 트램(Peak Tram) 5개 노선이 완공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32] 인용문을 통해 그는 숲과 나무 사이를 누비며 '굉굉 ' 소리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는 트램을 보며 빼어난 풍광과 서양의 기술력이 함께하는 홍콩의 면모에 탄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병헌은 과학 기술과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홍콩의 모습을 보여주며 근대적 설비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하였다.

결국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홍콩의 도시구조와 면모를 보며, 그는 과거 중국 왕조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곳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시킨 서구 기술과 문명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그것은 분명 중국 자력으로

31) 李炳憲, 『中華遊記』卷2, 「湖山遊汎錄」, 16면, "(4월)三十日. 往花園, 乍焉休憩, 縱步至南山之巓. 巓有引電機器廠, 電車上下馳驟, 林間甬道, 竦直而傾斜, 來遲而去急, 繁陰綠樹之中, 時聞轟轟之聲矣. 山之東西拖長, 而南北兩面繚, 以港灣乘高, 俯下迤北一帶, 乃香港全埠. 而山之全體, 層樓傑閣, 星羅碁布, 望之境, 甚佳絕."

32) 태평산 피크트렘 공식 누리집(https://www.thepeak.com.hk/ko) 참조.

만든 것이 아닌 영국이라는 제국에 의한 변화였기에 홍콩은 곧 영국에 의해 완성된 근대 도시의 표상과도 같았다. 물론 그것은 '이식'된 것이지만 그 성격과는 별개로 그 결과는 유의미하다는 인식이었다. 이에 그는 "아! 영국 사람들이 이 항을 경영한 것이 불과 수십 년인데 하나의 국체를 완연히 성립하였다. 이른바 앙격로살손(盎格魯撒遜, Anglo-Saxon) 민족은 어디에 땅이 있는지 논할 것 없이 열 명이면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어찌 허언이리오?[33]"라며 그들을 평가했다. 그에게 홍콩은 영국인을 더 이상 '양이(洋夷)'로 낮춰 보며 그들의 기술 문명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할 필요성이 상당함을 드러낸 것이다. 요컨대 그에게 홍콩은 섬이라는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영국이라는 서구 근대 문명이 빚어낸 동아시아 제일의 항구도시로 각인되었다.

3. 국제 해항을 향한 시선과 도시 공간 인식

그가 기행 했던 '안동에서 북경'까지의 정보는 오랜 역사적 관계와 연행의 전통 속에서 상당 부분 구축되었다. 또한 곡부 일대는 일종의 성지(聖地)이자 이상향으로서 모든 유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지역이었다. 더불어 강유위를 만나기 전 기행 했던 절강성 항주의 서호(西湖)는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고려 후기 이래로 한국 문인들의 시선이 집중된, '문화적 동경과 표상을 만들어 낸' 장소였다.[34] 반면 홍콩은 그에게 '중

33) 李炳憲, 위와 같음, 15면, "噫! 英人之經管此港, 不過數十年, 宛成一國體, 所謂盎格魯撒遜民族, 勿論在何地, 十人成一國者, 豈虛語哉?"
34) 김동준, 「한국 한문학에 표상된 중국 서호의 전개와 그 지평」, 『한국고전연구』7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79쪽. 한편 서호로 향한 그는 이곳의 10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문학을 재감상하는 면모를 보였다.

화'의 면모를 발견하거나 역사적 인물 혹은 사건을 회상할 공간이 아니었다. 즉 당시 서양 제국인 영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던 홍콩에 대한 축적된 정보가 부족했기에, 그에게 이곳은 더욱 이색적인 공간으로 인지되었을 것이다. 이에 그는 '중화' 속에 있는 작은 서구를 발견하며, 그들이 구축한 서구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집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미지의 공간에 대한 탐색'이라는 기행의 본질에 보다 집중했던 것이다. 더욱이 숙원이었던 강유위와의 만남도 성사되었기에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에는 홍콩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국제도시 '상해'가 있었지만 이병헌에게 그곳은 홍콩과 같은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홍콩을 방문하기 위해 상해로 향하던 배에서 그는 '탐욕스럽고 도의가 없으며 사기 치고 신용이 없는' 중국의 하근인(下根人)과 마주하며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35] 더욱이 상해 부두 도착 직전에는 "교녀(巧女)와 걸객(乞客)이 포낭(布囊)을 긴 장대 위에 메달아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며 밥을 청하는데 그 굶주린 얼굴빛과 형색이 참담하여 볼 수 없었다."[36]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병헌에게 홍콩은 이러한 이면이 발견되지 않아 이곳은 상해를 넘어 동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인지되었다. 그렇다면 홍콩이라는 도시공간을 그는 어떠한 의미로 수용하고 또 어떠한 관점을 통해 해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타지에 대한 '관찰'은 곧 본국에 대한 '성찰'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에게 홍콩이라는 장소는 크게 두 가지 표상으로 각인되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각성과 개신에 대한 당위를 환기시키는 현장

사실 강유위 역시 22세(1879년) 때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하였다고 전한

35) 노관범, 앞의 논문, 30쪽.
36) 李炳憲『中華遊記』卷2,「湖山遊汎錄」. 2면, "二十七日早朝, 兩脚滴滴, 方依埠, 而停則傍有無數小艇, 園繞而至, 巧女乞客, 以布囊, 係于長竿之上, 苦叫請飯, 其菜色鵠形, 慘不見矣."

다. 이때 그는 ‘건물의 아름다움 · 도로의 정결함 · 순포(巡捕)의 엄밀함을 돌아보니 서양인의 국가 운영에 법도가 있어 예전의 이적(夷狄)으로 대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37] 진암 역시 유사한 사유의 흔적을 보였다. 압록강을 건너 ‘홍콩’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안과 밖을 세밀히 기록한 이병헌은, 중국의 실상을 전함으로써 기존의 관념과 관습으로부터 탈피하는데 일조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특히 홍콩으로 향할 때 두드러졌는데 아래의 인용문은 상해 인근의 오송항(吳淞港)을 지나 홍콩으로 향하던 그의 심사를 담고 있다.

> (4월) 30일. 동틀 무렵 갑판 위에 오르니 곧 잔월(殘月)은 서쪽에 비껴있고 아침 해가 동쪽에 솟아나고 있었다. 사방 망망한 대해에 하늘은 텅 비고 바다는 탁 트여 있는데 다만 보이는 것은 만점의 붉은 광명이 파도 사이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대개 칠구종(七句鍾)[38]안에 이미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일출을 완상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내지(內地) 인사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산심처(萬山深處)에 머물러 안계(眼界)가 통하지 않고 혹 높은 봉우리 정상 위에서 일출을 얻어 보고는 일생의 기우(奇遇)라고 소리칠 뿐이니 어찌 우습지 않을손가?”[39]

이병헌은 1925년 강유위의 제자 왕양명(王良鳴)의 서문을 붙여 간행한 『유교복원론』에서 사실상 교조화 된 종래의 구습과 관념을 비판했다.[40] 그는 「유교종지(儒教宗旨)」에서 보발(保髮)과 광메(廣袂)를 유자의 제일주

---

37) 백영서, 「20세기 전반기 중국인의 홍콩 여행과 근대체험」, 『중국현대사연구』34, 중국근현대사학회, 2007, 101쪽.
38) 일구종(一句鍾)은 한 시간의 구칭(舊稱)으로 곧 칠구종은 7시간을 의미한다.
39) 李炳憲, 『中華遊記』卷2, 「湖山遊汎錄」, 14면, “二十三日. 侵晨登板上, 則殘月西横, 旭日東昇, 四顧茫茫, 天空海闊, 而但見萬點紅光明, 滅於波間. 蓋七句鍾之內, 旣見日落而又翫日出. 回念吾內地人事, 居萬山深處, 眼界不通, 或高峯絶頂之上, 得見日出, 卽叫爲一生奇遇, 豈不可笑哉?”
40) 최초의 간행은 1919년 중국 청도(青島) 동문인쇄국(同文印刷局)에서 발행한 것이다.

의로 삼는 것을 수구(守舊)라고 비판하면서 '복식이란 시대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소위 존화양이(尊華攘夷) 또한 존기비인(尊己卑人)의 관습적 결과라 규정하며 외국인을 이적금수로 지목하는 것은 천하의 공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41] 홍콩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의 상념을 담고 있는 위 인용문 역시 시대적 변화나 흐름과는 무관한 '고정불변'의 격식을 고집하는 세태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던 그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유교의 개혁 그리고 이를 통한 현실 개선을 도모했던 그였기에, 근대기 유자의 활동무대는 종래의 만산심처가 될 수 없고 사고체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그의 신념은 홍콩으로 향하는 도정에서 더욱 강하게 표출된 것이다.

홍콩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던 그는 우연히 한 장소에 도착한다. 더위를 피해 도착한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을 서술한 그는 서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재차 역설했다.

> 서인(西人)의 매장소(埋葬所)에 돌아 들어갔는데 석총이나 옥관의 만듦새는 비록 일치하지 않았지만, 청결을 갖추고 있었다. 비(碑)는 높고 갈(碣)은 짧았는데 모양은 간혹 조금 달랐지만 격식은 방정했다. 눈부신 연못이 맑게 미끄러지고 당부(堂斧_ 즉 분묘_필자주)는 정초(整楚)하였으며 사이에 이름난 화초와 기이한 풀들을 심어 놨다. 또 분수 연못을 설치하고 좌우에 섬돌을 쌓아 앉는 의자를 배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머물며 차상(嗟賞)하게 하니 마치 절승(絶勝)의 공원에 들어온 것 같았다. 중국 사람들이 벌판이나 구독에 난잡하게 매장하는 것에 비하면 어찌 천양지차일 뿐이랴. 백암이 "세상은 서양 사람들의 생활 정도가 동쪽의 풍속에 비해 매우 뛰어남을 알 뿐, 죽은 이를 보내는 절도 또한 스스로 극진함은 모르노라"라고 했다. 아! 나는 서양이 동

41) 이상성, 「진암 이병헌의 유교개혁론과 공교운동」, 『한국철학논집』4, 한국철학사연구회, 1995, 144쪽.

양을 취한 것이 진실로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동양이 서양을 취한 것을 마땅히 어찌 한정할 수 있으랴?[42]

29일 홍콩의 명승과 연항(沿港)을 보기 위해 출타한 이병헌은 유다리아(維多利亞,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을 보고 유원(愉園)을 관람한 뒤 잠시 쉬었다가 서쪽으로 향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도착한 곳은 서양인의 묘지였다. 유자들에게 있어 상례는 매우 절대적인 가치였기에 대단히 정비된 묘지의 모습을 통해 이병헌은 서구의 장묘시설에 사자(死者)에 대한 예우가 상당하다고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경제적 수준만이 높은 것이 아니라 문화적 수준도 낮지 않음을 그들의 묘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심지어 그곳은 중국의 실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진암은 중국 대륙의 현실을 대비시키고 또 백암의 말을 빌려 어떠한 것이 또 무엇이 더 "송사지절(送死之節)"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다. 이는 곧 서양이 동양을 취한 것만을 크게 부각하며 스스로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정작 동양이 취한 것 혹은 취해야 할 것은 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혹 절도(節度)를 갖추고 있고 더 유용하다면 애써 거부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즉 그는 중국의 일부였던 홍콩이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취했다고 해서 그 도시가 미개하거나 인륜이 떨어지는 도시로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취해야 할 것은 응당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에서 홍콩까지의 여정에 대한 그의 총평 역시 홍콩에서의 경험과 인식의 연장선이었다.[43]

42) 李炳憲, 위와 같음, 15면, "迴入于西人埋葬所, 石塚玉棺, 制雖不一, 而備嘗潔凈, 崇碑短碣, 樣或差殊, 而式各方正. 色澤瀅滑, 堂斧整楚, 間植名花異卉. 又設噴池, 築砌左右, 列置坐椅, 令人留連嗟賞, 如入絕勝公園也. 比中國人之亂葬於原野溝瀆者, 何啻天壤? 白岩曰: 世知西人生活程度, 遠勝於東俗, 而不知送死之節, 又能自盡也. 噫! 吾知西之取東者, 固自不乏, 而東之取西者, 當何限也?"

43) 5월 7일 상해로 돌아온 그는 귀국 전 소주(蘇州)·진강(鎮江) 등 강소성의 주요 도시와 명승을 다시 둘러보고 17일 상해로 돌아온 뒤 다시 배에 올라 안동(지금의 단동)으로 향했다.

옛사람은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44]라고 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필히 차를 마신다. 또 옛사람은 꿇어앉아 예를 행하고 또 걸터앉거나 방석에 앉으며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거만하지 않은 자는 있지 않았다."[45]라고 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의자에 걸터앉을 뿐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는 사람은 없다. 장자는 "말 머리에 멍에 씌우고 소의 코를 뚫는다."[46]고 했지만 지금은 코뚜레 소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볼 수 있었던 중국의 진보이며 이는 반드시 서구풍을 바탕 삼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 사무에 중국의 구습만을 좇고 있으니 참으로 개완(慨惋)하도다![47]

위 인용문은 「호산유범록(湖山遊汎錄)」의 대미를 장식하는 언급이자 첫 번째 기행을 통해 얻은 그의 결론과 같다. 요지는 변화된 시대를 서둘러 인정하고 그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진보 또한 이렇듯 서양의 기술 문명의 보조 아래 이뤄지고 있었지만 결코 중국은 자신의 바탕(유교, 즉 공교운동)을 멀리하지 않고 있음을 직설하고 있다. 이에 그는 이른바 구래(舊來)의 제도는 절대적으로 계승할 것이 아니라 개신(改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재차 천명하고 있다. 진암에게 이른바 진보는 단순히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실질을 선입견 없이 보고 판단하여 장점을 취하여 활용하는 문제였다. 즉 그는 당대 유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곧 서구의 문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 '직시'하는 태도임을 강조하며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는 이른바 "통변지권(通變之權)

이후 압록강을 건너 5월 28일 한양에 도착하며 약 100일 간의 일정을 마감하였다.

44) 『論語 · 述而』,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45) 『河南程氏遺書』卷80, "安有箕踞而心不慢者?"

46) 『莊子 · 秋水」, "牛馬四足 , 是謂天 ; 落馬首 , 穿牛鼻 , 是謂人."

47) 李炳憲, 『中華遊記』卷2, 「湖山遊汎錄」, 20면, "古人云飯疏食飮水, 而今也必啜茶, 古人以跪坐爲禮, 又跨坐團坐而曰: 未有箕踞而心不慢者, 今也皆踞椅子, 未有席地而坐者. 莊子曰: 絡馬首穿牛鼻, 而今也未見鼻之牛, 於此可以見中國之進步, 而未必資歐風, 而然也吾東, 則每事務,循中國之舊習, 良用慨惋也."

에 어두웠던"[48] 과거와 단호한 작별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그에게 국제 해항 홍콩의 발전상은 변화와 개신을 환기시키는 공간으로 귀결되었다. 홍콩은 서양의 제도를 도입하여 매우 빠르게 진화하는 도시이면서, 공교 회장 강유위와 같은 전통 사상이 함께하는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홍콩은 이미 과거의 관습이나 허례의식에서 빠르게 탈피하면서도 공교 운동의 정신을 내재하고 있어, 곧 중화 전통의 자장 위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홍콩이라는 공간을 보며 서구 기술 문명의 수용은 피할 수 없는 '당위'와 같은 것임을 더욱 진지하게 응시하고 성찰하게 되었다. 중화의 끝자락에 위치한 서구식 근대 도시 홍콩의 면모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는 그의 시선은 분명, 당대 유림에게 이른바 기존의 구습에서 벗어나야 함을 요청하는 것과 연결된다. 그에게 서구 근대의 과학 기술은 이미 목전에 닥친 중요한 '세무(世務)'로서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적용하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였던 것이다.[49] 이런 배경에서 그에게 '홍콩'은 서구의 과학이라는 재료를 매우 잘 이식하고 구축한 모범적인 공간임이 증명되어, 여전히 구시대의 유물을 보수하려는 구지식인의 인식 전환을 재차 요구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수렴되고 있다.

2) 안정과 공존을 염원하는 한인들의 새 터전

사실 여행이란 우연과 불시의 만남이 중첩되는 일이 많은데, 사실 그것

48) 李炳憲, 『中華遊記』卷2, 「中華再遊記」, 22면, "味乎通變之權也."
49) 이는 일찍이 그가 과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과도 접맥된다. 1903년 남산에서 그는 '전차 · 전선 · 철도 · 철교'와 같은 근대 기술을 실물을 접하며 그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움직이게 하며 그 면모는 조선의 옛 모습이 아님을 깨닫는다. 변화된 시대를 절감한 그는 "논교(論教)와 과학(科學)이 아니면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 적용할 재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李炳憲, 『李炳憲全集』, 「眞庵我歷抄」, 아세아문화사, 1988, "勿論教與科學, 人生斯世, 不得爲適用之材. 고바야시 히로시, 앞의 논문, 52쪽 재인용)

이 여행 자체를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우선 강유위를 만나기 위한 그의 홍콩행 또한 출발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의외의 상황은 기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데, 강유위를 만나기 위해 당도한 이곳에서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과 조우하게 된다. 바로 이주 '한인'들이었다.[50]

> (4월) 26일 이른 아침에 배가 다시 운행하더니 잠시 뒤 홍콩 부두에 도착, 하선하여 환가(環街)의 태안잔(泰安棧)으로 향했다. 시가(市街)를 와서 보니 누옥(樓屋)이 정제되어 웅장하고 위엄 있게 배치되어, 해안을 시작으로 봉우리 꼭대기까지 달했다. 항만에는 물이 소용돌이치고 산세는 길게 구불구불 뻗쳐있고 풍경은 요조(窈窕)하여 상해보다 빼어났다. 객잔에 들어가니 우리나라 사람 홍(洪)·윤(尹) 여러 청년들이 때마침 같은 객잔에 있다가 내가 도착했음을 듣고 서로 찾아가 물으며 모름지기 술자리의 회포를 다하였다. 또 백암 박은식이 인근 객잔에 있다고 들어 찾아가 만나 활별(闊別)을 펴고, 인하여 함께 화원에 들어가 기이한 꽃과 이역의 나무들을 보았다.[51]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병헌은 그곳에서 고국의 동포들이 자신을 반

50) 표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한국인의 홍콩 진출은 1888년 상해-인천 항로 개설 전후로 추정된다. 유인석이 1897년 상해에서 출판된 『구산지결(臼山旨訣)』을 비판하며 "대개 김영섭(金永燮)은 개화 주사인데 인천에 거하며 상해·홍콩에 출몰한다. 큰 바다의 도시에서 서양어를 배우고 서양 여인을 거두어 아이까지 낳은 자다."라는 발언을 참조해보면 한국인의 홍콩 진출은 개항 이후 해양노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柳麟錫, 『毅菴集』卷42, 「題臼山旨訣後」, "蓋金永燮, 爲開化主事, 居仁港. 出沒上海·香港. 犬羊都會, 學洋語畜洋女而生子者也.") 이후 대한제국의 망국은 보다 다양한 인원들의 이동을 야기했는데, 이에 홍콩에도 상업적 활동뿐만 아니라 망국을 피해 또 독립을 도모하려는 한인들이 삼삼오오 집결하고 있었다.

51) 李炳憲, 『中華遊記』卷2, 「湖山遊汎錄」, 14면, "二十六日, 早朝船復開行, 有頃抵香港碼頭, 下船向環街泰安棧. 而來見市街, 整齊樓屋, 雄偉排置, 起自海岸, 達于峰頂. 港灣瀠洄, 山勢蜿蜒. 風景窈窕, 勝上海. 既入棧, 我人洪尹諸君, 適在同棧, 聞余之至, 互相過問, 須破涔盃之懷. 又聞朴白庵在隣棧, 往見敍闊別, 因共入花園, 見其奇花異樹."

겨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기에 반가움은 더욱 배가되었고, 이에 그는 한국에서 건너온 여러 청년과 정답게 인사하고 함께 술자리를 갖는다. 물론 각자의 처지는 서로 상이했겠지만 모두 망국의 유민(遺民)이 된 채로 이역의 섬인 홍콩에서 상봉했기에, 신분 · 나이 · 지역과 관계없이 반갑게 인사 나누고 함께 술을 주고받는 기꺼운 순간이 그에게 펼쳐졌다. 이렇듯 이곳은 동포들과 상봉하는 예상외의 무대가 되었다. 심지어 이곳에는 1910년 자신에게 중국행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주었던 '박은식'이 있었다. 1911년 서간도로 망명한 뒤 재중 언론 활동을 위해 홍콩에 건너온 박은식 역시 유교개혁에 대한 깊은 신념을 지닌 인사였기에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동지이자 길벗이었다.[52] 즉 이와 같은 그의 서술은 당시 홍콩이 점차 망국의 한국 유민들과 지사들이 집결하는 '한인들의 이주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으로 밀려난 인물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이역에서의 애수와 시름을 잠시나마 잊고 서로 용기를 북돋는 현장에 함께 하며 그는 이른바 '동포애'의 면모를 체험하게 된다.

이병현은 이제 홍콩은 중국인 그리고 영국인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도 새롭게 자리하며 분투하고 있는 생존 공간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특히 이를 더욱 실감하게 된 것은 고국의 '인삼 상인'을 목격한 이후였다. 근대기에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 산업이었던 삼업(蔘業)은 일제강점기 이후 총독부의 관리 하에 들어갔고 미쓰이(三井) 물산의 전매품이 되었다. 여타의 중국 지역에서도 인삼에 대한 수요는 적지 않았지만 습윤한 기후인 남방지역은 인삼의 최대수요처였다.[53] 해상을 통한

52) 참고로 백암은 1911년 6월 서간도로 망명하여 1912년 북경으로 떠났다. 당년 말 상해와 남경으로 옮긴 그는 신규식과 교류하였다. 이후 그는 중한 합동 잡지인 『향강잡지(香江雜誌)』의 편집을 맡기 위해 1913년 10월 홍콩에 도착했다. (배경한, 「中國亡命시기(1910~1925) 朴殷植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동방학지』121, 연세대 한국학연구소, 2003. 235쪽.)

해외 판로가 확보되면서 삼업은 매우 번성하여 1913~1914년의 수확량은 미증유의 생산이었을 만큼 호황을 이어갔다.[54] 이러한 배경에서 홍콩에도 한국 인삼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하지만 이병헌은 심히 근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 5월 1일. 누워 우리 내지 사람을 생각해보니 삼상(蔘商)을 업으로 삼고 본 항에 왕래하는 자가 현재 바야흐로 십(十) 수인(數人)이었다. 그러나 간혹 삼종(蔘種)이 좋지 않거나 혹은 신용이 떨어지는 것을 이끌어 상황이 점차 전과 같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개탄스럽다. 대저 우리나라의 삼종(蔘種)은 본래 천하의 영약(靈藥)으로 불리는데 근세 이래로 해마다 썩어 문드러진 옛 뿌리들이 유전되어 앞으로 멸절되어 없어지고, 겨우 외래종을 함부로 들인 것이 점점 계속 성장하고 더욱 높아 가는데 이르렀다. 내지에 있는 토종은 그 가치가 이미 올라 파는 곳이 대단히 희귀했다. 이에 상민(商民)들이 해외로 가져오는 것은 외래종이 둔갑하거나 토종과 섞인 것이었다.[55]

상술한 것처럼, 해상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홍콩 일대의 인삼 무역은 날로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 삼상(蔘商)들의 진출도 성사되었다. 하지만 이병헌이 포착한 인삼 무역의 실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때

53) 참고로 1919년 후반기 중국 내 한국 인삼 판매량을 살펴보면 홍콩(2,790근)은 상해(12,730근)에 이어 두 번째 판매처였다. 3위는 광동(1,600근) 4위가 하문(廈門, 1,295근)이었다. 반면 한구(漢口)는 630근, 천진(天津)은 40근에 불과했다. (최낙민, 「1920年代 開城商人들의 紅蔘販路 視察記 考察」, 『중국학』73, 대한중국학회, 2020, 651쪽.)

54) 양정필, 「1910~1920년대 개성 상인의 백삼(白蔘) 상품화와 판매 확대 활동」, 『의사학』 38, 대한의사학회, 2011, 93-108쪽.

55) 李炳憲, 『中華遊記』卷2, 「湖山遊汎錄」, 16면. “五月一日. 臥念我內地人之, 以蔘商爲業, 來住本港者, 現方十數人, 而或因蔘種之不佳, 或引信用之寢襄, 狀況漸不如前, 是用慨惋耳. 夫吾邦蔘種, 素號爲天下靈藥, 然挽近以來, 逐年腐滅舊根之遺傳者, 行將絕無, 而僅有外種之冒入者, 漸至繼長而增高. 土種之在內地, 其値已昂, 所售幾希, 是以商民之帶往海外者, 始焉眩外種而混土種.”

의 감정은 '당혹'과 유사한 것이었다. 인용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상인들이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저질이나 외래종을 섞어 인삼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한 것이다. 중화권에서 한국 인삼의 명성은 당시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고 또 홍콩이라는 거대한 중개 시장이 있었기에 이병헌은 한국의 인삼 품질을 유지 및 개량한다면 "세계에 독보하여 수출할 방도가 없을까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다.[56] 그런데 당시 삼상들이 국제적인 무역항 홍콩에서 거래하고 있는 인삼은 품질이 지나치게 형편없고 그저 명의만을 참칭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토종을 버리고 외래종을 사들여 사사로이 이익이 있는 곳에 농단을 부리니, 누가 다액의 가금(價金)을 내던져버리는 일을 수긍하겠는가?"[57]라며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이러한 우려의 발언은 이곳 한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존을 기대하고 염원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58] 이제 이곳은 한인들이 '정거'해야 하는 공간이기에 사사로운 행동은 이들의 정착을 곤란하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조우한 한인들을 통해 반가움과 우려를 동시에 감지한 그에게 홍콩은, 한인들의 정주와 안착에 대한 염원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안도 공존하는 도시로 다가오게 된다.

56) 위와 같음. "廣開蔘圃, 發成良好之果, 則吾邦神聖之種, 將獨步寰宇, 而不患輸出之無方也."
57) 위와 같음. "又舍土種而貿外種, 以私壠斷利之所, 孰肯拋擲多額之價金."
58) 결국, 이와 같은 발화는 홍콩이라는 무역항에 향후 한국 삼인들의 출입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작지만 결코 홀시하지 못할 이곳은 향후 수많은 상인뿐만 아니라, 청년 및 박은식과 같은 지사들까지 함께 머물며 개인의 생존과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지낼 기회의 터전으로 거듭날 것이 자명했다. 하지만 현재 삼인들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한인을 향한 신뢰가 떨어져 이후 홍콩으로 오는 한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도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이병헌은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4. 결론

이병헌은 강유위의 금문경학과 공교 사상을 난세의 대책으로 절실하게 인지하고 한국 전통 유학의 풍토를 개혁함으로써 이를 변화를 위한 내적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그는 심산유곡에 머물며 시대를 근심하면서 과거 전통을 진력으로 보수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의 유교 사상과 방법론이 갖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계'를 넘어 타지를 직접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조선의 내·외적 변화를 도모하려는 그의 의지와 실행은 분명 주목할 여지가 충분한 특징적 면모였다.

그는 근대의 상징과도 같은 '기차'와 '여객선'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해외의 풍경과 세태를 직접 체험하며 견문을 넓히고 지적 영역을 확대하려 했다. 그의 해외체험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고 장소는 '중화'의 역사가 서려 있는 중국이었다. 그곳에는 이승희와 같은 선유들이 이민족의 지배를 피해 새로운 유교 공동체 구축에 헌신하며 공교 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더욱이 중국에는 그에게 지대한 지적 충격과 함께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과 같은 강유위가 머물고 있었다.

이에 그는 그들을 직접 만나 고견을 듣기를 바라며 1914년 1월 여정에 올라 압록강을 건너게 된다. 이후 봉천과 북경을 거쳐 중화의 땅이지만 이색적인 정취가 담긴, 또 중국의 영토였지만 영국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 버린 홍콩까지 방문했다. 이병헌은 강유위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곧 성사되었다.[59] 동시에 그는 서구에 의해 설계되어, 화려하고도 내실 있는 도시로 변모해가던 국제 해항의 면모와도 자연스럽게 조우했다. 약 10여 일 동안 홍콩의 도처를 누빈 그는 서구 근대 문명의 실질을 직접 대면하며 이를 자

59) 홍콩 만남 이후에도 이들의 직·간접적 교류는 강유위의 사후 1년 전인 1926년까지 이어졌다. 또한 이병헌은 1919년 강유의의 금문경학을 주로 삼는 조선공교회의 거점인 배산서당(培山書院)을 건립하기도 했다.

세하게 기록했다. 결국 이러한 그의 태도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 타자에게 다가가 타자를 나와 긴밀한 관계로 인지하려는 의지와 연결되고, 또 타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 본국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와도 접맥된다.

이곳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그는 정제되면서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홍콩의 모습을 가감 없이 기술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에게 홍콩은 동아시아 제일의 근대 도시로 각인되었다. 홍콩을 두루 탐방하는 과정에서 그는 도시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이를 자신의 현실 인식과 개혁 의지와 접목시켰다. 즉 서구 근대 제도나 기술 문명을 지나치게 경계하며 배척하는 태도를 보였던 한국 유림을 향해, 이러한 세계의 실정을 직시하며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활력 있는 서구 도시의 면모를 구비하면서도, 중화의 상징인 '공교 운동'의 거점이 된 홍콩은 그것을 증명하는 공간으로 인지된 것이다.

한편, 불모의 땅과 같았던 홍콩에서 발견된 의외의 풍경은 곧 당대를 즈음하여 시작된 한인들의 이주였다. 다만 한인 인삼 상인들의 거래 행태에는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결국 이들을 향한 우려와 근심의 기저에는 홍콩이라는 장소가 단순한 이역이 아닌 국난을 피해 이주한 한인들의 평안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라는 염원이 있었다. 요컨대 『중화유기』 속 홍콩 관련 기록은 당대 유학자들에게는 사실상 미지의 공간이었던 홍콩의 풍경을 담고 있으면서도, 당시 통상적인 구(舊)지식인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이병헌의 개혁적 면모와 시각이 선명히 표출되어 있는 유의미한 한문 기행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中華遊記』, 『韓溪遺稿』, 『毅菴集』.

고바야시 히로시, 「이병헌과 근대기 외국과의 만남」, 「종교학연구」8,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89.

금장태, 「진암 이병헌의 유교개혁사상」, 『철학과 현실』16, 철학문화연구소, 1993.

김동석, 「진암 이병헌의 심세와 애국의식」, 『남명학연구』46, 남명학회, 2015.

김동준, 「한국 한문학에 표상된 중국 서호의 전개와 그 지평」, 『한국고전연구』7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노관범, 「1910년대 한국 유교지식인의 중국 인식」, 『민족문화』40, 한국고전번역원, 2012.

배경한, 「中國亡命시기(1910~1925) 朴殷植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동방학지』121, 연세대국학연구원, 2003.

백영서, 「20세기 전반기 중국인의 홍콩 여행과 근대체험」, 『중국현대사연구』34, 중국근현대사학회, 2007.

양정필, 「1910~120년대 개성 상인의 백삼(白蔘) 상품화와 판매 확대 활동」, 『의사학』38, 대한의사학회, 2011.

오병한, 「1910년대 『中華遊記』와 李炳憲(1870~1940)의 현실 인식」, 『숭실사학』37, 숭실사학회, 2005.

윤현태, 「한계 이승희의 중화민국 인식」,『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국인문학회, 2018.

이상성, 「진암 이병헌의 유교개혁론과 공교운동」, 『한국철학논집』4, 한국철학사연구회, 1995.

이송이, 「혼종적 정체성의 해양도시: 식민과 탈식민, 내셔널리즘과 코스모 폴리타니즘 사이의 홍콩」, 『해양도시문화교섭학』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1.

이시키와 료타, 「조선 개항 후 중국인 상인의 무역 활동과 네트워크」, 『역사문제연구』20, 역사문제연구소, 2008.

임계순, 「國際都市, 香港을 통해 본 中國史」, 『중국사연구』40, 중국사학회, 2006.

______, 「19세기 후반기 국제 항구도시, 홍콩의 서양인 사회」, 『중국사연구』44, 중국사학회, 2006.

정도원, 「臼山旨訣과 絅齋 金永燮의 간재학 계승」, 『동방한문학』91, 동방한문학회, 2022.

최낙민, 「1920年代 開城商人들의 紅蔘販路 視察記 考察」, 『중국학』73, 대한중국학회, 2020.

최보윤, 「『闢衛新編』의 편찬과 尹宗儀의 서양 인식」, 『교회사연구』3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한길로 · 오경양, 「재중 한인 디아스포라 김자순의 행적과 유교 인식 고찰」, 『국제한인문학연구』29, 국제한인문학회, 2021.
허권수, 「진암 이병헌의 생애와 학문」, 『남명학연구』46, 남명학회, 2015.
홍원식, 「한주학파의 공자교 운동」, 『한국학논집』3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9.
황영례, 「韓溪 李承熙와 海窓 宋基植의 孔教 運動의 相異性」, 『유교사상연구』39, 한국유교학회, 2010.

고전번역원DB (https://db.itkc.or.kr)
태평산 피크트렘 공식 누리집(https://www.thepeak.com.hk/ko)

| Abstract |

A Study on Jinam Lee Byung-hun's View and Space Perception toward Modern Hong Kong

- Focusing on『Joonghwa-yoogi(中華遊記)』

Han, Gil-Ro

Jin-am Lee Byung-hun(李炳憲) spent his time worrying about the colonial reality and Collapse of Confucianism. So he tried to solve practical problems through overseas experiences. After crossing the Yalu River in January 1914, he traveled from northeast China to Hong Kong. When he arrived in Hong Kong, he was the first to visit Kang Youwei's Hometown. because Kang Youwei(康有爲) is a person who has had a lot of intellectual influence on him. Through four meetings with him, Lee Byung-hun understood his philosophy more deeply and discovered a humane aspect. At the same time, he also carefully observed the appearance of Hong Kong, an international port city. Lee Byung-hun discovered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Western civilization through Hong Kong, and thought it should be judged without prejudice. He also confirmed that not only Chinese and British people but also Koreans live in Hong Kong. He hoped that Korean immigrants in Hong Kong would live faithfully and sincerely. His writings on Hong Kong illustrate the reality of Hong Kong at the time. At the same time, it also contains his original thoughts on Hong Kong. Through this text, We can find a scen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Confucian intellectuals in Korea and China. In short, Hong Kong-related

records contain Hong Kong's landscape, which was virtually unknown to modern Confucian scholars, but can be evaluated as a meaningful Chinese travel literary that clearly expresses Lee Byung-hun's openness and reform, which is difficult to find in ordinary Confucian scholars.

Key Words: Lee Byung-hun, 『Joonghwa-yoogi(中華遊記)』, Hongkong (香港), Confucius Religion Movement, Kang Youwei

· 논문투고일: 2022년 9월 28일 · 심사완료일: 2022년 10월 20일 · 게재결정일: 2022년 10월 20일